

Vol. 17 | 2022 SPRING 티처빌 매거진

TEACHERVILLE
20th

Zoom In Focus

2022년 4가지 교육 키워드, 4명의 교육전문가에게 듣다
교사의 일상과 함께하는 교사지원플랫폼 '티처빌'이 될 것

Class Know-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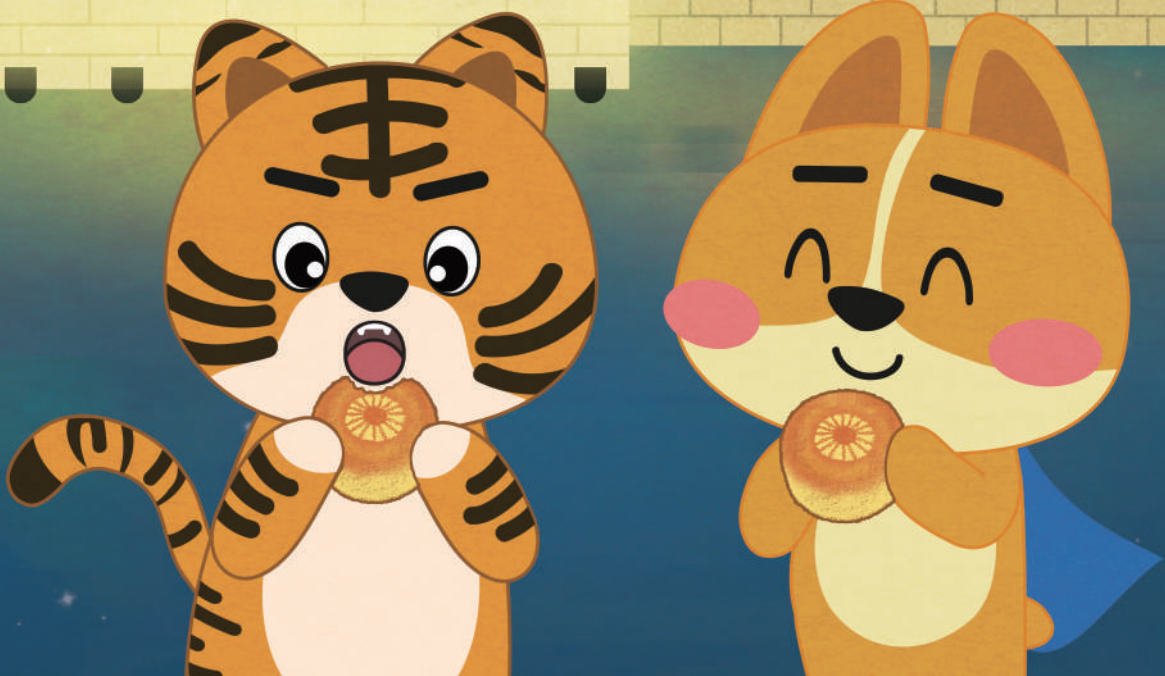
적극적인 학부모 소통으로 교사-학부모 간 신뢰 관계 형성
'모두가 꽃'인 아이들,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Interview & People

"도움이 됐다" "고맙다"는 인사가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편견을 버리니 사람이 보인다
운이 좋은 집은 '운테리어'가 다르다

Teacher Life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와 나눔의 뮤지컬을 꿈꿔요
내 안부 인사는 "언제 한번 같이 등산 가자"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2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를 옮겼어요.
학교를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4년 전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부적 커버린 아이들의 키를 보자니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감동할 줄랐어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님에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녀석들이 저보다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보고 있더군요.

우리는 바쁜 숲속에서
나 자신에게서보다 더 주위의 변화로
성큼성큼 떠나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올 한해 인연을 맺은 아이들도
시간의 흐름속에 빠르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CONTENTS

Vol.17 | 2022 SPRING



Zoom in Focus

- 06 2022년 4가지 교육 키워드,
4명의 교육전문가에게 듣다
• 송형호, 임운영, 정영찬, 송경훈
- 10 교사의 일상과 함께하는
교사지원플랫폼 '티처빌'이 될 것 • 김지혜

Class Know-How

- 12 적극적인 학부모 소통으로 교사-
학부모 간 신뢰 관계 형성
• 이상우
- 16 '모두가 꽃'인 아이들,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 안희진
- 20 학생·학부모 랜선 상담 같은 새로운 접근을
• 박정현

Teacher mall

- 24 AI 스마트 장바구니부터 교과서별
준비물까지 한 번에 • 에듀커머스사업부

Interview & People

- 28 “도움이 됐다” “고맙다”는 인사가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 켈리샘
- 32 버려진 마스크·배달 자장면...
“모든 교육이 환경교육이다”
• 이지원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2년 3월 16일 통권 제17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e.com

디자인·인쇄 ㈜태산애드컴
T. 02-2268-2488



40



52

- 36 편견을 버리니 사람이 보인다
• 고성한
- 40 운이 좋은 집은 '운테리어'가 다르다
• 박성준

Teacherville News

-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6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AI 코딩블록'
• 티처빌사업부
- 48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0 신규과정

Teacher Life

- 52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와 나눔의
뮤지컬을 꿈꿔요 • 김영후
- 56 내 안부 인사는 "언제 한번 같이 등산 가자"
• 이하림

Book

- 60 스쿨 메타버스/
중등 학급경영/
지혜로운 교사는 교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Cartoon

- 62 험툰 Heartoon • 이병용



56

2022년 4가지 교육 키워드, 4명의 교육전문가에게 듣다

#인성교육#고교학점제#학교공간#에듀테크(AI)



#인성교육

#환경교육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메타버스

#학교공간

#민주시민

#에듀테크(AI)

2022년은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다양한 교육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티처빌이 올해 더욱 주목해야 하는 교육키워드 8가지를 꼽아 보았다. 이 8가지 키워드는 지난해 《티처빌 매거진》에서 모두 다룬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4가지를 선택해 그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4명의 교육전문가에게 들어보았다.



송형호 선생님

#인성교육

비대면 상황의 증가로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 하지만 교사 중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법의 배경을 톺아보고 왜 인성교육이 중요한지,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476명의 승객을 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온

국민이 분노했고, 우리 사회 윤리·도덕이 총체적으로 마비됐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자각은 청소년 시절부터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열흘 만인 2014년 5월 26일 이 법안이 국회의원 10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10명 이상이면 발의되는 데 그 10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법안은 그해 12월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다음 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 난맥상 교육과정 이외에 법률로 강제하는 교육이 많은 게 큰 몫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학폭법’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생활지도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법률을 ‘학교폭파법’이라고 자조 섞인 표현을 합니다. 이미 학폭법의 뜨거운 경험을 한 생활지도부장들은 국회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또 다른 학교폭파법을 만들지 말고 교육과정에 차분하게 반영해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간곡하게 요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교사용지도서를 살펴보면 인성교육이 상당히 반영돼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교육과정만으로는 이를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새롭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담임(교과 담임 포함)과 생활교육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스며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궁리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며들려면 ‘재감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미·감동·정보’를 뜻합니다.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노래·퀴즈·영상·체험학습지 활용 등이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우선 QR코드로 소개합니다. 잘 마무리해줘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할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꺼내 쓰세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상 활용 인성교육



인성교육



라이프 스킬 학습지



학교폭력 예방퀴즈



임운영 선생님
현 한국교총 부회장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의 변화에서 #고교학점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시스템의 변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교육이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고등학교)의 변화는 그야말로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 제7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창의적 인간,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등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시스템의 변화는 이전 교육과정의 변화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이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상대평가 시스템이 성취평가제를 통한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바뀌고, 학점 미이수자는 보충학습 등을 통한 재이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평가체제가 개편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은 고교교육과정의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게 되고 수업 중 공강이 발생하는 등 대학교 수업 시스템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면 ‘담임교사라는 표현이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교입학을 앞둔 중학생들은 미드(미국드라마)에서 봐왔던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교사와 학교가 준비돼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면 다양한 과목이 제공돼야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도 필수적입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결국 교사의 몫이죠.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준비는 돼 있을까요?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마루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의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영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학교공간

인성교육이나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 변화에서도 #학교공간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학교 공간은 기존의 폐쇄적인 공

간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부·교육청의 학교공간혁신사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을 통해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정립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에 대해 첫 경험을 하고 유년기 시간 대부분을 보냅니다. 학교 공간 속에서 ‘개방성’과 ‘확장성’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을 위한 자율적인 정신과 건강한 시민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 학교라는 공간을 바꾸고, 배움을 설계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주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학교 공간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시각에서 학교 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 공간의 개방성 학교 공간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길들이



고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배움을 찾는 공간이 되도록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학교 공간’의 확장성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병용되고, 메타버스(metaverse), AR과 VR 등 가상세계를 통한 수업까지 학교라는 공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가상세계까지 확장되고 연결될 때 시공간의 구속을 넘어 배움의 집단지성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송경훈 선생님

#에듀테크(AI)

코로나19로 인해 확산한 에듀테크의 물결, 이제는 #인공지능 과제로 함께 합니다. 왜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학습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해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법과 지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교육은 인간이 해야지 인공지능은 할 수 없

어’라고 배척할 대상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교실이 추구하는 방향성 중 하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입니다. 아무리 학습당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교실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1대 다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별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개별 학습활동 기록과 분석자료는 학생과 선생님의 학습 과정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개별 기록과 정량적 피드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에서 추구하는 것은 컴퓨팅 사고력이고 코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보다는 분석적·논리적 사고 등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육정책 방향으로 ▲전 국민의 인공지능 이해 확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 학습하지만, 인간은 스몰데이터(Small Data)로도 높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상식이라는 것을 인간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디지털 환경을 학습자가 잘 활용할 수 있게 코칭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는 사고의 과정이 다릅니다. 기존 세대의 경험으로만 지금 세대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방법을 코칭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교수자와 학교의 역할일 것입니다. ㉠

티처빌 20th

교사의 일상과 함께하는 교사지원플랫폼 '티처빌'이 될 것



글.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티처빌연수원**  **쌤동네**  **티처몰**  **클래스메이커**

2002년 5월, 선생님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시작됐다. 이후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편리하게 돕는 교육 전문 쇼핑몰 '티처몰'을 출시했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2016년 콘텐츠 공유 플랫폼 ' 쌤동네'를 론칭했다. 올해는 초등 검정교과서 체제를 맞아해 교사 수업 지원 서비스 '클래스메이커'를 선보였다. 그 결과, 티처빌이 교사의 생태계를 연결·지원하며 '교사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지혜 티처빌사업부문 대표는 "티처빌 20주년을 맞이해 올 해는 더욱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교사의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연계해 교사의 일상에 티처빌을 완전히 녹아들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티처빌연수원·쌤동네·클래스메이커에 대한 올 계획도 전했다.

티처빌연수원, 선생님이 만든 직무연수 준비 중

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다. 티처빌연수원은 이런 흐름에 맞춰 연수원도 플랫폼화해 현장 선생님이 직접 만든 직무연수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한다. 기술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선생님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더 빠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티콘'(Teachers Make Contents)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쌤동네, 교사가 만드는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

쌤동네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였다.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 모임을 찾아다니며 선생님에게 묻고 또 물어가며 우리나라 최초로 교사 콘텐츠 오픈마켓이자 지식 공유 플랫폼 쌤동네를 론칭했다. 선생님이 만든 콘텐츠를 선생님이 공유하고, 선생님의 모임(라이브연수)을 선생님이 공유한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1만 1,560개의 카테고리



1. 지식 공유 플랫폼 쌤동네 새 학기 쌤모임.
2. 교과서별 수업자료 큐레이션 '클래스메이커'.



약력 김지혜

-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 前 캐럿글로벌
커리어컨설턴트

별 콘텐츠와 817개의 쌤모임(라이브연수)이 선생님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쌤동네는 우리나라 최초의 콘텐츠 오픈마켓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고 교사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교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고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며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런 흐름은 교육계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

클래스메이커, 검정교과서 체제에 필요한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초등 3~4학년 이상의 수학·사회·과학 교과서를 국정 체제에서 검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의 분권화·자율화가 강화되고 교과서 편찬·발행의 모든 권한이 교사에게 위임됨으로써 학교 자치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혁신 교육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교사의 업무를 가중한다는 우려가 크다. 티처빌은 이점에 착안해 수업지원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출시했다. '클래스메이커'는 현직 교사와 인공지능(AI)이 초1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출판사별·교과목별 학년·과목·단원·차시별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7만 6,000개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별 추천학습단계, 참고 발문, 학생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추천학습구간 등 선생님이 더욱 쉽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검정교과서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 클래스메이커 활용을 독려하고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별 학습 과정 및 결과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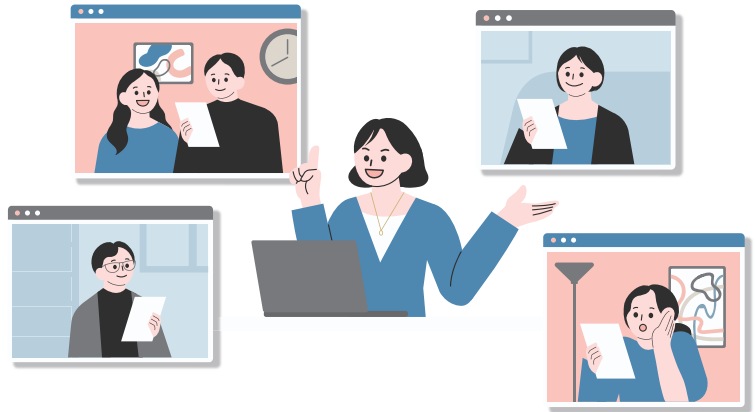
에듀테크 기술로 교사라이프를 지원해 나갈 것

티처빌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교사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교사의 라이프를 지원해 나가 고자 한다. 기술이 교육을 위한 보완재임이 틀림없지만 기술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방법을 바꾸고 있다. 『언택트 교육의 미래』 저자 저스틴 라이시는 “기술은 학습을 변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티처빌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해서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 교사들을 적극 지원하며 학교 안팎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올해도 애써보고자 한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①

새 학기 학부모 상담 가이드

적극적인 학부모 소통으로 교사- 학부모 간 신뢰 관계 형성

글. 이상우 경기 금암초등학교 선생님



새 학년 학부모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

새 학년 학부모 상담은 참 부담스럽다. 1년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바뀌니 매년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부담스럽다고 피하면, 정작 소통해야 할 때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해야 할 때 더 불편하다. 학부모와 소통이 부족할 때 학부모가 자녀의 말만 듣고 교사에게 따지듯이 말해 원활한 대화는커녕 감정이 섞인 불편한 대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니 좋은 싫든 교사가 먼저 학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적절한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맺는 노력을 해야 서로 오해가 줄어들다.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학기 초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써보자

학부모는 교사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알기 어렵다. 오죽하면 학부모가 1학기 상담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라고 한다. 부모가 주변에 수소문해 보지만 전해 들은 얘기라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학급 운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쉽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새 학기 초 교사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다.

편지는 첫인사-자기소개(전공과 특기, 교직 경험)-교사로서의 마음가짐(교사가 된 이유)-해당 학년 학생들의 발달과 특성-학급 운영의 방향과 특색(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써 길러주고 싶은 부분들)-교사로서의 다짐-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그 외 덧붙일 말-끝인사 정도의 흐름이면 된다. 물론 언급한 내용대로 다 쓸 필요는 없고, 순서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교사도 자신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알려야 부모도 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사가 된 이유나 앞으로 1년을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 것인

지에 대한 부분,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등은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일반적인 글을 약간만 수정해 보낼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비치기 쉽고 교사의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 시간을 내서 연습 삼아 한 번 써보자. 다른 교사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편지의 형식을 참고해 써보면 어떻게 쓸지 감이 온다.

밴드나 클래스팅 같은 SNS 학급 소모임을 운영해보자

가정으로 보내는 편지는 인쇄해서 아이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학급의 학부모 밴드에 올릴 수도 있다. 밴드·클래스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 중에서 장단점을 고려해 한 가지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좋다. 매일 올릴 수도 있고, 2~3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씩 올릴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간혹 활동사진을 올렸더니 ‘우리 애가 작게 나왔다’, ‘표정이 안 좋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사로서는 매우 속상하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도리어 항의를 받으니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모의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만 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먼저 속상한 부모 마음에 공감하고, 다음번에는 자녀의 멋진 모습을 독사진으로 올려주면 된다. 학부모 민원을 받고 기분이 좋을 교사는 없지만, 자신의 교육활동 방향과 맞으면 불만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낫다.



약력 이상우

- 경기 금암초등학교 교사
- 법학사, 학교상담 석사과정 졸업(전문상담교사 1급)
- 계간 《우리아이들》 교육신문 교육희망 고정 필진
-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
- 前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 저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상담 사례』,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학부모 상담을 하는가?』, 『지혜로운 교사는 교실 속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는가?』(공저)
- 경기도교육청TV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별별〉(학부모용) 강의

평소에 칭찬 메시지, 질병 결석일 때 캐쥬 메시지를 보내보자

교사와 학부모의 첫 대화가 학교폭력이나 학생의 문제행동이라면 좋은 대화로 이어지기 힘들다. 특히 이런 대화를 할 때 교사도 마음이 불편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아무래도 전화로 먼저 할 수밖에 없으니 얼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스러운 대화가 잘 진행될 리가 없다. 사전에 교감이 없으니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 형성도 어렵고 껄끄러운 대화의 양금이 이후 상담에서 이어져 서로가 불편하고 소통이 꺼려진다. 이미 학기 초에 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가정으로 보냈다면 좀 낫다. 이에 더해 평소에 칭찬 메시지와 캐쥬 메시지를 보내면 효과가 매우 높다.

1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전에 하루에 3~4명씩 정해 학생이 열심히 노력한 점, 학급에 기여한 점, 교사로서 고마운 점 등을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수업시간에 불필요하게 끼어드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좋은 면을 포착해 보낸다. “어머님, 상우가 즐겁게 학교생활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해 학급 분위기를 살리는 활력소가 되네요.” 칭찬 메시지를 받은 부모는 교사가 자녀를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 부

모도 자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나중에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할 때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담임교사에게는 25명 중의 1명이지만, 부모에게는 1~2명 중의 1명이다. 이런 자녀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거나, 병원 갔다 오느라 학교에 늦어지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학기 초에 밴드에 공지나 별도의 안내장으로 병원 치료로 인한 지각이나 병결의 경우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병결 메시지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답장을 보냈다. ‘아픈 아이 공감-연락에 대한 감사-쾌유 기원-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담았다. “어머님, 아침에 바쁘실 텐데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상우가 몸이 아파서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상우에게 병원 치료 잘 받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고 전해주세요.” 질병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안내하면 좋다. 결석한 다음 날 학생이 학교에 왔을 때 위로와 관심을 표현한다.

학기 초 전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개인적으로 밴드에 공지글도 올리고, 학생들 알림장에 교사가 부모께 안부 전화한다는 내용을 써 보낸 뒤, 하루에 몇 명씩 가정에 전화했다. 부모는 교사로부터 편지도 받았다. 교사가 밴드를 만들어 학급 활동을 공유했다. 자녀로부터 학급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는 우호적인 편이다. 말 그대로 처음 인사드리는 안부 전화이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교사가 학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이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부모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전화할 때 부모가 이미 제출한 우리 아이 성장 보고서(가정환경 조사서)의 내용을 약간 활용할 수도 있다. 통화 시간은 보통 3~4분 정도면 충분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시기에 경기도의 한 1학년 선생님은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말에 가정으로 전화하고 학부모와 얘기를 나누고, 이어 학생과 인사를 했다. 자녀가 초등 1학년에 입학하면서 걱정이 많을 것이고, 아이도 불안해할 수 있으니 교사로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부모들은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고마워했고, 반응도 매우 좋았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공개 vs 비공개

최근에는 교사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는 추세다. 전화번호 공개와 비공개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공개 이유 중 하나가 사적인 카톡 프로필 사진 등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카톡처럼 소통하고 싶는데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의 하나가 카카오톡 채널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일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채팅 가능 요일 및 시간도 설정할 수 있다. 각종 안내장이나 사진, 공지글 게시도 가능하다. URL을 따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카톡에서 검색해 친구로 추가할 수 있다. 다음 포털에서 ‘카카오톡 채널’로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교사용 카톡 채널 만들기’를 보고 활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를 오픈하지 않고 학부모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 카톡 ID 친구 추가를 통해

통화를 할 수도 있다. ‘카톡 실행-카톡 하단 왼쪽의 사람 아이콘 클릭-카톡 상담 우측의 사람 모양+아이콘 클릭-ID로 추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학부모 소통을 위한 다모임과 부모교육 소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학부모 다모임을 할 수 있다. 주간이나 야간에 정해진 시간에 학급의 학부모들과 모여 학급 운영에 대해 안내한다. 한 달 동안의 학급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중요한 행사를 안내한다. 학부모가 학급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교사가 답한다. 가정과의 연계 지도나 학부모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주간에는 학생 개인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지는 것에 비해, 학급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다. 교사의 특색있는 학급 운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얘기들, 좋았던 부분들을 나눌 수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혹시나 민원 성토장이 될까 염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부모가 대다수다. 적절히 협의하면서 모임의 대화 흐름을 조절하면 학부모 다모임도 고려할 만하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부모 소통법이 중요하다

맘카페를 비롯한 SNS와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학부모들이 교사를 옥죄는 목소리가 들린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입장은 물론 지식과 경험이 다르니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에게 감사 메시지를 받으면 힘이 난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도 교사로부터 아이에 대한 칭찬과 공감의 메시지를 받을 때 힘이 난다. 서로 많이 다른 것 같고 어색하지만,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양육전문가인 학부모에게 진심을 담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부모도 마음이 움직이고 학급의 부모들도 담임교사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흐른다. 학교에서 아무리 즐겁게 생활해도 집에 가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학생들도 있다. 교사와 충분한 소통 없이 자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부모가 담임교사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뒤늦게 교사가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 해도 자녀와 융합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기 초 교사가 다양한 창구로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학부모를 교육의 장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수업과 생활지도로 담임교사가 최선을 다하면 대다수 학생의 입을 통해 가정에 전해지고 학부모도 교사의 학급 운영을 신뢰하게 된다. 학기 초는 바쁜 시기다. 학부모 소통을 위한 에너지 조절이 필요하다. 선생님들 각자의 학급 운영이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부모 소통법을 시도해보고,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는 학부모 소통법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❶



새 학기 학급 환경미화 꿀팁 '모두가 꽃'인 아이들,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글. 안희진 정선 봉양초등학교 선생님

‘전면등교도 불확실한데 학급 환경미화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개학이 찾아왔다. 허전한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므로 매일 등교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설렘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학년 담임선생님이라면 학교와의 ‘첫 만남’인 아이들을 위해 환경미화에 힘써보는 건 어떨까?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림책 작가인 안희진 선생님(활동명 ‘예쁜안쌤’)에게 학급 환경 구성 노하우를 물어보았다. ‘예쁜안쌤’의 블로그에 가면 새 학기 환경 꿀팁도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약력 안희진

- 정선 봉양초등학교 교사
- 일러스트레이터
- 그림책 『좋은날』

안전하고 편안한 교실, 아이들의 꿈 자극하는 공간이어야

교실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아이들의 꿈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기에 교실 환경 조성을 할 때 아이들이 다양한 색의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반은 밝음·명량함·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안정·집중에 도움이 되는 초록색을 적절히 안배해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었다. 교실 곳곳에 인테리어용 소품을 뒤 아이들의 미적 감수성을 높였다. 나는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닌지라 조화나 모형 화분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적절한 공간 배치와 주기적으로 교실 환경을 바꿔줘야

교실을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눠 놀이 공간, 독서 공간, 그리기 공간으로 구성했다. 놀이 공간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보드게임과 전래 놀이 도구(옷놀이·비석 치기·사방치기)들을 뒀고, 독서 공간은 학급 문고를 만들어 아침 활동 시간이나 학습활동을 먼저 끝낸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기 공간에는 롤 페이퍼와 색종이·색연필·사인펜·연필깎이 등이 있어 쉬는 시간마다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은 교실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교육활동 주제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교실 환경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며 호기심과 관찰력을 키우려 노력했다.



1~3. 외쪽부터 그리기 공간,
독서공간, 놀이공간.



교육 철학과 학급 살이 반영한 교실 환경 조성해야

1) 교육철학은 게시판 문구로

교실에서 아이들은 '모두가 꽃'이다. 저마다의 속도와 아름다움을 지닌 예쁘고 귀한 존재다. 교사의 몫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1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고,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교육철학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교실 앞 게시판에 '우리는 모두 꽃'이라는 문구를 붙여주었다. 게시판 문구 하나로 1년 동안 우리 교실이 추구하는 학급의 이정표가 만들어졌다. 게시판 제목과 소식판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폼보드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리뉴얼한 디자인을 '예쁜안쌤' 블로그에 공유할 예정이다.

2) 학급 운영 자료는 앞에, 아이들 관련 자료는 뒤에

아이들과 자주 공유하는 게시물은 교실 앞에 배치한다. 학교 소식지, 함께 만든 학급 규칙, 학급 온도계, 시간표 등 학급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은 교실 앞면에 게시하는 것이 학생과의 소통에 효과적이다. 다만 너무 많은 내용을 앞에 게시하게 되면 자칫 시선이 분산돼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여백을 두고 중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게시할 것을 추천한다.

교실 뒤 게시판은 오롯이 아이들의 영역이다. 학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파티를 열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일을 월별로 구분해 생일판을 구성하고 아이들의 학습지나 결과물, 작품 등을 게시했다. 작품을 게시할 때 그림홀더를 사용하면 교체가 쉽고 간편하다.

교실 환경에 학급 특색을 녹여내는 것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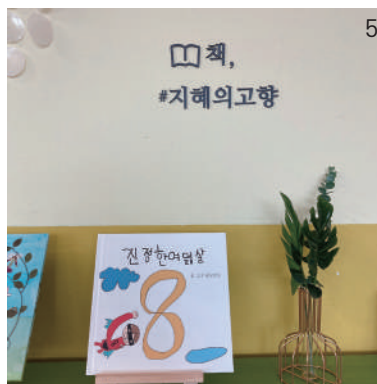
우리 반의 학급 특색교육은 『그림책』으로 엮여가는 가치교육이다. 주로 수업시간을 활용해 직접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주제로 소통할 때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나눌 수 있다. 학급문고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찾아주는 곳으로, 특히 공들인 공간이기도 하다. 학습의 주제, 계기 교육, 계절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책을 바꿔주고 '지혜의 고향'이라는 별칭도 붙여 준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이들은 학급문고의 별칭만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미니 이젤 위에 선생님의 추천 책이나 학급 프로젝트로 우리가 함께 만든 그림책을 게시해두기도 한다. 학급문고의 문구는 입체 스티커로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제작한다.



4~5. 학급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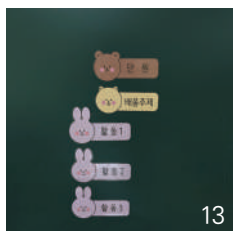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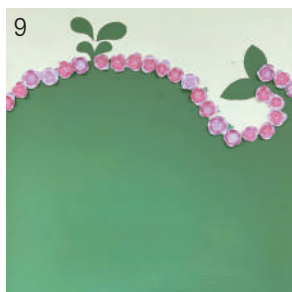
6~7. 교실 앞 게시판.

8. 교실 뒤 게시판.



신학기 교실생활
꿀템, 티처물





아이들과 함께 꾸미는 교실, 사계절 포토존

낯은 교실 벽면 한쪽에 고래 벽화를 그려주었는데, 이곳이 우리 반 포토존이다. 봄에는 벚꽃 맞잡이, 여름에는 미술관이 된다. 가을에는 복주머니에 소원을 매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해 사계절을 온몸으로 만끽한다. 아이들은 우리가 협력해 꾸민 벽면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다. 몇몇 친구는 집에 가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아가기도 한다.

선생님 혼자 환경을 구성하면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함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꼬마 예술가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진한 추억이 마음 깊이 남는다. 교실의 한 공간쯤은 아이들과 함께 협력해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보면 어떨까.

'예쁜안쌤' 블로그의 도안과 폰트 무료로 공유

학생 이름표나 학습 목표 세트, 안내 봉투 등의 환경 자료들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예쁜안쌤 폰트를 개발해 주간학습 안내나 편지, 학습지, 자료 제작 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쁜안쌤 블로그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자료 도안과 폰트들을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새 학기,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만남'

환경구성에 정답은 없다. 이 또한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만의 빛깔 있는 교실을 만들어 가면 된다. 다만 그 중심에는 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환경구성을 정성 들여 준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들과 만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순간일 것이다. 나는 선생님들이 그 '만남' 자체에 더 큰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 나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더 전념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 구성 자료들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아이들을 만나왔다. 3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교실에 찾아올 소중한 만남이 올 한 해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소망한다. ①

9~12. 아이들과 함께 꾸미는
교실 '사계절 포토존'

13~15. 환경미화 자료 도안.

'예쁜안쌤' Naver Blog

'예쁜안쌤' Instagram



코로나 시대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학생·학부모 랜선 상담 같은 새로운 접근을

글. 박정현 만수북중학교 선생님



새 학년 새 학기에 ‘학교폭력’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교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기 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많아지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차 음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학교폭력 전문 교사인 박정현 선생님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 접근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 힘든 시간 보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고,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고,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 사이는 마스크와 칸막이로 가려졌고, 등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생업과 가정학습 증가로 아이들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한가요? 방역과 안전을 위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수업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배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의 증빙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면 숨은 퍽 끝까지 차오릅니다.

백신 접종, 치료제의 보급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

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고, 기초학력의 문제와 교육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법은 거의 없는데 엄청난 예산만 내려오고 있어 걱정이 큼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존경과 안타까움이 함께 교차합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 '학교폭력'에 관심 기울여야

새 학기,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더 걱정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수많은 학교 업무 중 가장 꺼려지기도 하고, 발생하면 굉장히 머리 아픈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매년 연수를 통해 안내를 받고 그간의 경험은 있지만, 사안을 마주하면 어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지금 함께 고민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숫자 속에 감춰진 학교폭력 실태, 음성적으로 변화 중

최근 5년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치상으로 분명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처리와 학교에서의 헌신적인 교육과 대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 속에 감춰 있는 부분을 세밀히 바라보면 안심할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의 양상을 보면 흉포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도 더 음성적으로 숨어두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예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안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생님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안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약력 박 정 현

- 만수북중학교 교사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한국교총 학교폭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 KICE 국어교과 전문위원
- KERIS 콘텐츠 개발 및 감수위원
-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위원

다양한 학교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해

코로나19 상황은 학교폭력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온라인 상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이나 SNS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그 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작은 화면 속으로 침묵하며 몰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 현실세계보다 더 빠르고 때로는 과격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제어 수단이 없어 폭력적인 언어도 함께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의 상처를 받고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관계 양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고, 악의적인 편집도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자신

도 모르게 사이버 폭력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는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실태 파악부터 차근차근... 학생·학부모 랜선 상담 권해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 관계성이 현재 많이 무너져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환경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랜선 상담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그룹 형태의 랜선 상담은 아이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상담도 랜선을 활용하면 서로 부담도 덜 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 형성이 이뤄진다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구조와 관계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상 속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선을 아이들에게 맞춰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들으며 풀어간다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여러 해 맡으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대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지요 같이 아파하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컸고, 다양한 분야에서 해법을 찾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⑦



초등선생님의 든든한 수업메이트 클래스메이커



한눈에 보기 GO >

많아진 검정교과서 때문에 새학기 수업준비 막막하시죠?
선생님을 위한 시간절약템 #클래스메이커 에서 바로 수업하세요

01

초등 1~6학년 국정/검정 교과서
차시별 동영상 76,000여 개 제공

02

현직선생님이 선별한 콘텐츠
AI가 추천하는 똑똑한 큐레이션

03

광고, 저작권 걱정 없이
추천학습 구간만 딱! 바로 수업

04

학년-교과서 설정으로
나에게 딱 맞는 콘텐츠와 준비물도 한 번에!

NEW

22년 새학기 1~6학년 업데이트



1~2학년 국정 **국수봄여름안전** 5종 500차시
3~4학년 검정 **수사과** 25종 2,200차시
3~6학년 검정 **음미체실** 29종 2,200차시

금영출판사 (주)교학사 (주)한영사 DAEKYO 동아출판사 차세대교과서
visang Mirae (주)지각사 천재교육 미래와이비엠 I-Screammedia

어떤 교과서를 써도 수업준비의 시작은 클래스메이커!

* EVENT *

동료 선생님께
클래스메이커 추천하시고
새 학기 축하 선물 받으세요~

~ 3/31



클래스메이커 2.0 미리보기



모바일로
접속가능한
반응형 클래스메이커



내가 필요한
자료는 어디에?
통합 검색



즐거찾기한 자료로
수업 리스트를 만드세요
즐거찾기 2.0



내가 수업한 차시를
기억했다 알려주는
진도 북마크

4월 중
오픈 예정

문의 | 02-3442-7783

클래스메이커 | <http://classmaker.teachervil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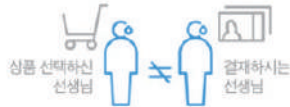
새 학년 새 학기에는 티처몰

시 스마트 장바구니부터 교과서별 준비물까지 한 번에

글. 테크빌교육 에듀커머스사업부



“학교아이디로 다같이 쓰니
다른 선생님과 물품이 섞여요”



“행정실쌤께 결제요청이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작년 학습준비물리스트를
동료쌤께 공유하고 싶어요”



“예산과 장바구니
결제금액에 차이가 날 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 학년이 시작됐다. 신학기 준비부터 교육과 방역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된 일선 학교는 우왕좌왕, 그야말로 혼란이다. 에듀테크사업부에서는 상품을 선택하는 선생님과 결제하는 선생님이 다른 특수한 학교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 스마트 장바구니 서비스(특허출원)’를 출시했다. 선생님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학교에 최적화된 서비스, 새로운 시 스마트 장바구니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 장바구니의 새로워진 기능 4

1) MY 장바구니(여러 개 만들기)

장바구니 추가 기능으로 필요한 만큼 장바구니 생성이 가능해 옆 반 선생님과 장바구니에 담은 물품이 섞이는 혼란을 방지한다. 과목별·행사별 학급 운영에 맞춰 여러 개의 장바구니를 관리 할 수 있다.



My 장바구니(여러 개 만들기)

기본 장바구니 외에 필요한만큼 장바구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ID로 결제요청

내 아이디로 물품을 담았는데 행정실 또는 구매 담당 선생님이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마트 장바구니 결제요청 기능으로 더는 장바구니에 다시 상품을 담거나 아이디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 “결제 요청하기” 버튼만 클릭 하면 끝!



다른ID로 결제요청

담아 놓은 장바구니를 다른 분께 결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장바구니 공유하기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은 A 선생님은 지난해 3학년 담임이었던 B 선생님으로부터 장바구니 리스트를 공유받을 수 있다. A 선생님은 공유 받은 장바구니에서 수량 조절과 물품만 추가 하면 쉽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



장바구니 공유

장바구니 그대로 다른 분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예산 자동 맞춤

1원 단위까지 예산에 딱 맞춰주는 기존 티처몰의 예산 맞춤 서비스는 고객센터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해 장바구니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금액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오픈했다.



예산자동맞춤

예산에 딱 맞춰 결제해야 할 때 장바구니 금액을 맞춰드립니다.

스마트 장바구니
동영상 보러 가기



교과서 단원별 준비물 원클릭으로 주문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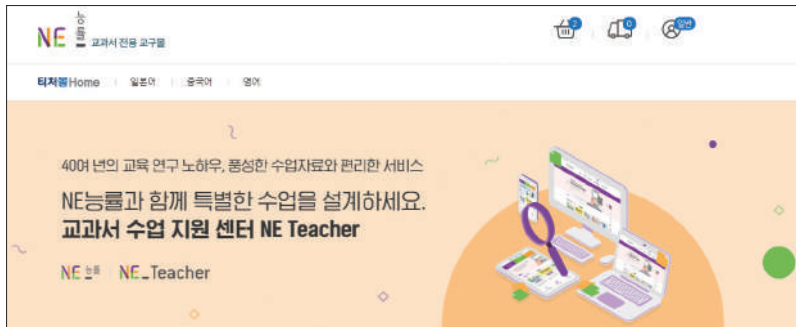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수학·사회·과학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에듀커머스사업부는 금성출판사·능률·동아출판·비상교육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사의 교과서별 전용 교구물을 개설했다. 교과서 전용 교구물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신학기 단원별 준비물을 담은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과목별·단원별 준비물 리스트 정리는 물론, 물품 리스트를 일일이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까지 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티처몰에 오픈된 각 교과서 전용 교구몰과 서비스를 지면으로 먼저 살펴보자.

■ 금성출판사 전용 교구몰



■ 능률 전용 교구몰



■ 동아출판 전용 교구몰



비상교육 전용 교구물

visang 비상교육 전용 교구물

티처빌 Home | 수학 | 사회 | 과학 | 음악 | 미술 | 체육 | 실과 | 경제&수업연구소

비상교육이 초등 선생님의 풍성한 수업을 책임집니다.

전국 11,399개 학교가 사용하는 비상교육 교과서
50만 개 이상의 과목별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비바샘

비바샘 초등 | visang

visang 비상교육 전용 교구물

티처빌 Home | 수학 | 사회 | 과학 | 음악 | 미술 | 체육 | 실과 | 경제&수업연구소

수학

3학년1학기

1. 덧셈과 뺄셈
2. 중간도형
3. 나눗셈
4. 곱셈
5. 길이와 시간
6. 분수와 소수

3학년2학기
4학년1학기
4학년2학기

2015 개정 수학 3-1
신창균(덕표초), 장아현(조보영), 정지나(경나영), 최학연(황학진), 신진수(익제면), 조동래(경음리), 박상원(오수진), 김하락(경아현, 조보영), 정지나(경나영), 최학연(황학진), 신진수(익제면), 조동래(경음리), 박상원(오수진), 김하락(경아현, 조보영)

교과서 자세히 보기 | 수업 자료 사이트

전체 상품 보기

1. 덧셈과 뺄셈

* 상품지 옵션과 수량 변경을 하시려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 변경하신 후 장바구니에 담거나 열람을 진행해 주십시오

퍼즐리아 연결수모형
수량: 1개
39,600원 4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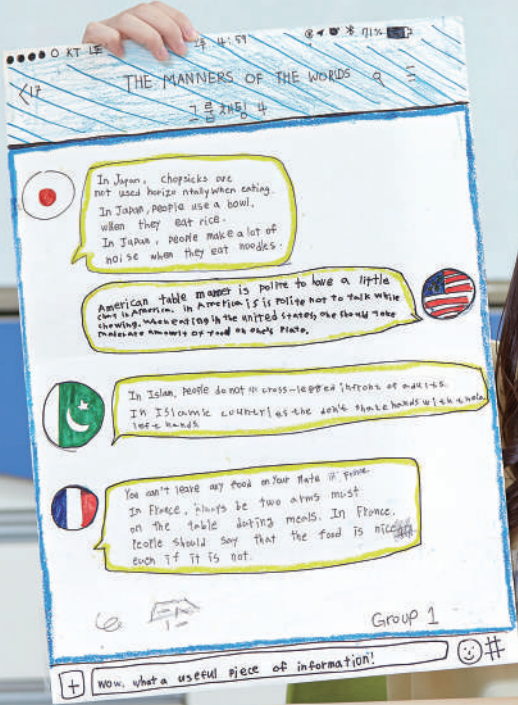
자세히 보기 | 장바구니 담기

이 상품이 들어있는 상품 보기 >

각 출판사 전용 교구물에서 과목과 학년, 단원을 선택하면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가 출력된다. “전체상품담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상품이 ‘My 장바구니’에 담긴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더 쉽고 편리하게 교과서 전용물에서 원클릭으로 학습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에듀커머스사업부에서는 AI 스마트 장바구니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해 서비스를 고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수업 시연 영상의 레전드 '캘리쌤'을 만나다

"도움이 됐다" "고맙다"는 인사가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인터뷰. 캘리쌤 | 프로필사진 ©김태우

커리어를 전환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성취한 결과를 쉽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나 제2의 삶을 시작한다. 오늘 만나본 캘리쌤도 지난해 말 교사라는 신분을 벗고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 계획도 없었다는 캘리쌤이지만 이미 즐거운 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설레는 봄을 만날 수 있었다.



약력 켈리샘

- 경북 및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근무(2014~2021)
- 교실수업개선 연구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2014)
- 유튜브 채널 <김켈리 Kellyloria> 운영(2018~)
- 성동광진교육청 지정 영어 교육 분야 멘토위원(2020)
- 저서 『초등 온라인 수업 가이드』, 『동명청이가 되었어요』

Q 켈리샘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까지 초등교사로 재직했던 김은영입니다. 교사 유튜브 버로도 활동을 해서 많은 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불리는 ‘켈리샘’으로 알고 계세요. 교대 시절부터 영어 수업에 큰 흥미를 가지고 교사가 됐고, 2018년 말부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대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교사 유튜브로 활동해왔어요. 2020년에는 온라인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많은 선생님과 소통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지난해 말 교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올해부터는 프리랜서 ‘김켈리’가 됐습니다.

Q 교사가 아닌 삶이 궁금한데요. 요즘 근황 좀 들려주세요.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교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 다행히 잘 치료받고 이제 회복해 건강해졌어요. 요즘은 유튜브로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기획해 영상도 찍고 공유하고 있고요. 티처벨과 새로운 연수과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틈틈이 아이들과 학교 밖에서 감격의 재회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Q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 떠날 때 걱정이나 주변의 만류는 없었나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같아요. 교직을 떠날 거라고 생각 못 했고, 2020년에 ‘교사로서의 전성기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즐겁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어요. 건강이라는 결정적 계기가 없었다면 올해도 학교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고, 결정을 내렸어요. 간혹 제 유튜브 채널에 ‘켈리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댓글을 다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때 저도 ‘용기가 있어서 결정한 게 아니다. 많이 겁이 났지만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이 와 결정했다’고 남겼어요.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어요. 아직 연수나 강연 요청 등이 있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그 고민은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많은 분이 응원해 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Q 지난해 11월에 중도 사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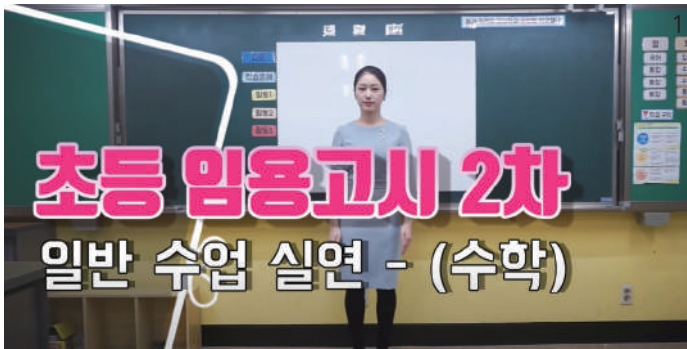
임용 준비하는 교대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사직 시기를 11월 임용시험일로 정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병 휴직 중이었는데, 휴직 중에는 유튜브와 같은 외부 활동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도움을 기다리는 교대생과

사범대생들이 있었고, 저로서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임용 준비를 위한 콘텐츠는 제가 처음 시작한 분야거든요. 2018년 영어 수업 시연 영상을 시작으로 4년간 꾸준히 콘텐츠를 공유해 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이 '도움이 됐다',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왔고, 그 일련의 순간순간이 제게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휴직 중에도 급여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초에 사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임용 준비할 때 많은 걱정과 불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지난해에 제게 도움받아 임용에 합격한 후배와 함께 수업 시연 영상 피드백도 진행했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 공통적으로 짚어줘야 할 부분들이 보여 이 점을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도 했고, 티처빌과 임용준비생 대상의 라이브 연수도 진행했어요.

Q 영상마다 피드백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았을 텐데요.

이번에 처음 해보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임용 준비생들이 기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10분간 시연 영상을 보내주면 인사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채점 요소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후 개선할 점, 장점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A4 1~2장 정도의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내용은 잘 짜는 반면 비언어적인 부분이 연습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말을 늘린다든지 필요 없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어투부터 자세, 목소리, 제스처까지 하나하나 피드백하다 보니 손이 정말 많이 갔어요. 1:1 컨설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벽까지 하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제 피드백을 반영해 만점을 받았다는 선생님들도 더러 있어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가 된 후 저처럼 임용 준비생들을 위해 팁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칭찬어람'이구나 싶었죠.

1. 250만 뷰, 초등 임용고시에 2번 합격한 켈리의 일반 수업 실연 영상.
2. 유튜브 채널 <켈리의 일상>.



Q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 앞으로 어떤 콘텐츠로 활동할 계획인가요.

학교를 배경으로 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예비교사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교실에서의 V-log가 많았어요. 교사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이 범주 안에서 유튜브를 운영해 왔거든요. 변한 환경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생각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공유해 보자는 마음이 커요. 여전히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고, 유튜버가 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아이들도 많아 제자들과 특정 주제에 대해 영상을 찍기도 해요. 어떤 콘텐츠로 소통할지는 계속 고민해 봐야겠지만 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제가 주변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꾸준히 해 보려고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키즈 콘텐츠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Q 유튜버 외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학교 안에 있을 때 교육이라는 업무가 참 무거웠어요. 교사지만 '과연 내가 전문성이 있을까' 스스로 의구심도 들었고, 자신감도 붙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 봤는데 교사는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동료 선생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서 '내가 정말 전문성을 쌓은 건지' 궁금할 때가 많았고, 아이들도 제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 학교에 있었던 시간 대비 제가 교육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면서 계속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러던 중 최근에 쌤동네에서 예교스쿨(예비교사 대상)이라는 강의를 시작했는데, 예비교사 대상의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과 수업하듯이 게임도 하고, 정말 교실에서 수업하는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덕분에 '내가 가르치는 일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강연하는 것도 좋아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도전해 보려고 해요.

Q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 모두 가슴 설레고 재미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저 또한 최근까지 교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T**

김켈리 Kellyforia





팬데믹 시대의 환경교육 버려진 마스크·배달 자장면... "모든 교육이 환경교육이다"

글. 이지원 서울구산초등학교 선생님



경제성장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없는 개발을 추구 해온 사이,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랐다. 이제 우리는 매년 폭염과 폭설, 긴 장마와 같은 극한의 날씨를 경험하면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증한 택배와 배달로 불거진 쓰레기 문제까지 직면했다. 이제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교사가 환경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깨운 소중한 일상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기존에 누리던 많은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잠시 멈춰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팬데믹 초기, 줄어든 미세먼지와 파란 하늘은 경제성장만을 향해 달려온 인류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원인으로 주목받은 인간과 동물의 접촉 방식을 보며 인간이 동물과 맺고 있는 잘못된 관계를 성찰하게 했으며, 동물과 사람, 환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기

어렵지만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불필요한 회식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보석 같은 곳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됐고,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생활의 편리가 불러온 기후위기와 팬데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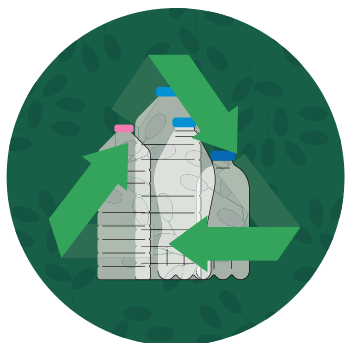
하지만 그 와중에도 늘어난 택배와 배달에 일회용품과 쓰레기는 넘쳐났고, 택배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고를 뉴스에서 꽤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어려움, 부국과 빈국 간의 백신 정의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써 숨기고 있던 치부들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걱정하고 더 편리하고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성장과 편리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나의 일상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언가를 착취해 이뤄집니다. 소외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발 딛고 살아가는 터전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팬데믹의 시대가 던진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원헬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주목받았던 ‘원헬스’(one healt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새롭게 생겨난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원헬스는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자연의 건강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어느 한쪽의 건강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원헬스를 ‘사람의 건강은 동물의 건강 및 (사람과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박쥐와 같은 동물들의 서식지가 확장되고 성장과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산림파괴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제성장을 외치며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먹기 위한 끝없는 개발로 자연과 야생동물의 건강이 무너졌고, 결국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의 사료 경작을 위해 불타는 아마존 밀림과 그곳의 숲한 생물들, 팜유농장 건설을 위해 사라지는 인도네시아의 원시림



약력 이지원

- 서울구산초등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전공 박사과정

과 서식지를 잃어가는 오랑우탄, 녹아내리는 남극의 빙하와 불법 포획 되는 거대한 고래. 우리가 익히 접하는 이러한 이미지들 또한 결코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세계가 나아가는 이러한 일방적인 방식의 결과로 우리는 숲을 떠나보내고, 생물다양성을 잃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날씨를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자유로운 일상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 팬데믹은 언젠가는 지난 일이 되겠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곧 우리 삶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발생과 대유행까지 그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우리 또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자연과 다른 종의 생물을 대하는 인간의 잘못된 관점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 삶의 방식과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또 한 사람의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필요한 환경교육, 그러나 현실은

기후변화에 있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작은 변화들이 쌓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 또는 그러한 상태)라 여겨지는 1.5℃ 기온상승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국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교육정책이 계획·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각 교과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삽입돼 있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개별교사의 역량에 따라 실행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나마 환경과목이 선택교과로 존재하지만 이를 선택하는 학교는 적고 가르칠 환경교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무엇일까요? 자연보호·분리배출·일회용품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환경교육일까요?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하려면 먼저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





교실에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든—교실에
들어온 한 마리의 벌,
동물원의 코끼리,
버려진 마스크,
어제 배달시켜 먹은
자장면—그것은
환경교육일 수
있습니다.



꿈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현재의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 다른 종의 생명(동식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한 알에 탄소 배출과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농민의 생명과 지역의 물문제가 이어져 있고, 팜유가 들어간 라면 한 봉지에 인도네시아의 원시림과 오랑우탄의 멸종위기와 노동자의 인권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오염과 거북이의 죽음과 미세플라스틱과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사회정의는 모두 함께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경계가 없고, 모든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눈에 보이는/보이지 않는 세상(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주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서로 의존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든—교실에 들어온 한 마리의 벌, 동물원의 코끼리, 버려진 마스크, 어제 배달시켜 먹은 자장면—그것은 환경교육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학·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W. 오어는 “모든 교육이 환경교육이다”(All education is environmental education)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가치 지킬 수 있도록 교실에서 대화를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시대,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어쩌면 1명의 환경운동가보다 환경에 관한 관심과 철학을 가진 100명의 시민일지 모릅니다. ‘환경’에 대한 지속할 수 있는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사회 곳곳 자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환경을 고려할 것이고, 그러한 선택이 모이고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엔데믹을 전망하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2022년의 봄에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미소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환경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키며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 교실에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⑦

편견을 버리니 사람이 보인다

글. 고성한 한울초등학교 선생님



누구나 한 번쯤 ‘편견’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오해하고, 갈등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는 어떨까? 또 좁은 교실에서 그런 적은 없을까? ‘편견을 버리니 사람이 보인다’라는 고성한 선생님의 일화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선생님들께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은 반 배정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갖게 마련이다. 물론 담임교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역 또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몇 년 전 내가 있던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제비뽑기로 학급을 결정했다. A·B반 등으로 아이들을 미리 나눠 학급을 만들어 놓은 후, 선생님들이 알파벳을 뽑는 식이었다.

새롭게 정해진 학급의 학생 명부를 살펴보았다. ‘생활’이라고 적힌 아이들이 있었다. ‘생활’은 ‘생활 지도가 필요한 아이’라는 의미였다. 전년도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지도가 필요한 아이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다음 담임교사를 배려하기 위해 적어놓았지만, 나는 ‘생활’ 표시가 적혀 있는 명부를 볼 때면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낙인찍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간사하게도 나는 그 아이들이 우리 반에 배정되는 것이 썩 달갑지 않았다.

몇 해 전 만난 규선(가명)이도 ‘생활’ 표시가 붙은 아이였다. 규선이는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자기소개 시간, 규선의의 차례가 되자 터덜터덜 교실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빼딱하게 숙이고 다른 친구들을 노려보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 내 이름은 규선이야. 내가 무슨 말부터 하려고 했지? 아 맞다. 생각났다. 나는 작년에 7반이었어.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러니까 내 말은...”
 혼잣말인 듯 아닌 듯, 횡설수설 종잡을 수 없는 규선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규선의의 모습을 보며, 전년도 담임선생님이 왜 ‘생활’ 표시를 써놓았는지 이해가 갔다.

일주일 후, 학급 회장 선거가 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규선이가 학급 회장 후보로 본인을 추천한 것이다.

‘혹여나 친구들이 장난으로 투표해 규선이가 회장으로 당선되면 어찌지?’
 규선이가 우리 반을 대표하는 회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수선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진지하게 투표한 덕분에 규선이는 달랑 1표만 받고 낙선했다. 선거가 끝난 후 혼잣말을 하던 규선이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친구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네가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학급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친구들이 널 뽑아주지 않을까?”

규선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욕도 잘하고, 화가 나면 손부터 나가는 규선이가 모범적인 아이로 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날 이후로 규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소외된 친구가 보이면 기꺼이 친구가 돼 주었고, 교실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나서서 중재했다. 평소에 잘하던 욕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규선의의 변한 모습에 친구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다.



약력 고성한

- 한울초등학교 교사
- CCCTIM
충남서부지역교사모임 대표
- 브런치 작가(관찰아쌤)
- 월간 《좋은교사》 교육에세이 연재

시간이 흘러 2학기 학급 회장을 뽑는 날, 명찬이(가명)가 규선이를 학급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규선이는 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우리 반 회장이 됐다. 규선이가 반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학급 회장이 된 사실이 놀랍고 대견했다.

사실 규선이는 부모님과 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다. 그보다 두 살 많은 형은 집에서 종종 그를 때렸고, 부모님은 형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방치했다. 그런 탓에 규선이는 집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규선이가 안타깝고 또 기특했다.

문득, 지금까지 ‘생활’ 표시를 달고 우리 반에 왔던 아이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매년 우리 반에는 한두 명씩 이름 앞에 ‘생활’이란 표시가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그동안 ‘생활’ 표시가 붙어 있다고, 아이들을 선불리 낙인찍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자 문득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고정된 틀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가능성과 진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활이란 꼬리표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을 텐데… 그랬다면 그 아이들의 행동도 이전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생활’ 표시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선입견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그런 표시를 적어놓지도 않지만… 지난해에는 말썽꾸러기로 낙인찍혔던 아이일 지라도, 새로운 학급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아이가 새롭게 평가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한다.

사람은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편적으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단편적으로 대한다. 이전에 정해진 평판으로 상대를 쉽게 단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상대의 진면목을 발견할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이 내린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편견을 거두고 상대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기를. ⑦



준비된 선생님의 장바구니 티처몰 가족이 되어주세요!

티처몰 가족 학교만의 특별한 혜택

학교예산 구매 시 모든 상품이 무료배송

학교예산 후불제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

행정 서류 지원

합배송 및 해외 배송 가능

타 쇼핑몰 상품 구매대행

학교장터(S2B) 전자계약 가능

다양한 이벤트

학교에 필요한 교구와 쌤 특가 상품 등록

물품 구매가 쉬워지는 편리한 기능

견적서, 에듀파인 견적서 다운로드

예산맞춤 시스템화

편리한 세금계산서 신청

새로운 장바구니 추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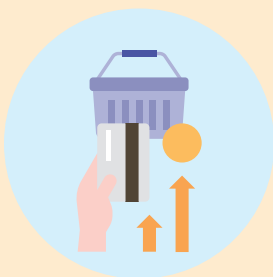
장바구니 공유하기(오픈 예정)

카카오톡 상담

클릭 한 번으로 1원까지 정확한 예산 맞춤! AI 스마트 장바구니!



My 장바구니
(여러 개 만들기)



다른 ID(행정실쌔)로
결제요청



다른 선생님에게
장바구니 공유



AI 원클릭
자동 예산 맞춤

AI 스마트 장바구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ouse Home

하우스에서 홈으로

운이 좋은 집은 '운테리어'가 다르다

글. 박성준 인컨텍스트건축사무소 대표



사람과 공간이 조화롭게 살도록 연구하는 풍수는 집을 정할 때뿐 아니라 내부를 단장할 때도 유용하다. 누군가는 풍수를 '미신'이라, 또 누군가는 '현대적 삶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 이론'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뤄가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풍수의 목적을 상기해보면 귀 기울일 부분이 분명 있다. 풍수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잘되는 집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왔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모진 북서풍은 피하면서 바람은 잘 흘러 소통이 잘되고, 물은 담아둬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서 풍수가 출발했다. 가장 이상적인 터라는 의미로 생긴 말이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란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풍수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 알려진 사례를 보더라도, 홍콩의 47층 건물인 홍콩상하이빌딩을 짓는 데 풍수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풍수를 고려해 백악관 집무실을 개조했다. 또 전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부부도 딸 하피의 방을 풍수지리학자에게 보여준 뒤 자문해 꾸몄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총수의 집과 사옥은 처음부터 풍수를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그 대지에 맞는 건물을 풍수를 따져 디자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기업 하는 분들, 큰돈



을 만지는 분들처럼 앓을 것이 많은 분이 풍수에 관심이 많다.

풍수를 실생활에 적용하다

풍수학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온 경험의 통계자료다. 집의 건축 요소·가구·가전제품 등을 자연의 원리와 닮게 배치해 기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풍수는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은 물론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인생의 큰 줄기를 올바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바로잡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집을 지을 때 대지 계획부터 평면 계획까지 풍수를 고려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오피스텔에 사는 게 일반적이고, 공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가구나 소품을 바꾸고, 그 위치를 바꾸는 식의 풍수가 현실적이다. 가령 예전의 집들은 현관을 열면 바로 욕실이 보이는 구조가 많았는데, 이는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이럴 때 현관에 중문을 설치해주거나 가벽을 설치해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바꿔줄 수 있다. 집 안 특정 공간의 색채를 바꾸거나 벽지 등을 바꾸는 식으로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풍수를 적용할 수 있다.

풍수인테리어의 시작은 '비우기'부터

집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우선 공간에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일단 빈 공간이 있어야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비만한 사람이 근육 있는 몸을 만들 때 우선 살을 빼는 것과 흡사하다. 풍수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우기'라고 할 수 있다.

풍수인테리어의 기본은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남은 물건은 정리 정돈을 잘하면서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며, 채광·통풍·환기가 잘되게 하는 것이다. 먼저 집이나 방에 있는 물건을 꺼내 불필요한 물건이나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리자. 그리고 방이나 거실을 너른 시선으로 한 번 둘러보자. 구매했을 때 물건의 가격을 떠나 웬지 싫거나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구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 눈에 띄지 않게 버려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생활 공간을 만든다

돈의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약력 박성준

- 홍익대 건축학과 졸업
- 집과 건물을 짓는 건축가
- 사람과 땅의 기운을 함께 보는 풍수 컨설턴트
- 생년월일시와 관상으로 사람을 읽어내는 젊은 역술가



©카멜레온디자인



©Oursplash



©카멜레온디자인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삶은 놀랄 만큼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집안의 운수를 끌어 올리는 풍수를 실천하고 있다. 정리하고 남은 물건들은 사용 빈도나 계절에 맞게 잘 수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납할 때도 빈틈없이 채우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며 갑갑하지 않게 해야 좋은 기운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생기 넘치는 공간이 답이다

공간에 생기를 줄 수 있는 관엽식물과 소품이 모두 좋은 건 아니다. 식물은 선인장이나 잎끝이 뾰족한 것은 좋지 않으니 두지 말고, 현관에 놓는 건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장식품은 피한다. 특히 철제 재질은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돼야 하는 집의 소품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자.



나무 테이블 위에 유리를 놓거나 대리석이나 돌 같은 차가운 성질의 재료로 만든 테이블은 따뜻하고 온화한 공간이 돼야 하는 식탁이나 거실의 테이블엔 어울리지 않으니 나무 테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랑이 넘치는 공간, 침실의 침대 배치하는 법

침대의 방향은 창문으로 침대 머리를 두거나 방문을 대각선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피해야 할 방향은 출입문, 화장실 그리고 서쪽이다. 침대 사이즈도 방 크기에 맞춰 선택하자. 주변 가구를 가로막는 구조가 되면 안 되고, 작은 침대로 공간을 초라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 이런 공간 연출은 그 공간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불편한 영향을 준다.



침대의 위치는 침실 방문의 대각선 모퉁이 2개의 면 중 한 면에 머리 쪽을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침실 문을 바라보며 잘 수 있어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운을 높여주는 소파 배치법

보통 소파의 위치는 TV 맞은편이 되기 쉽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소파의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위치, 즉 현관이 보이는 곳으로 선택하자. 그리고 현관의 바로 맞은편보다는 대각선의 기가 모이는 곳이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다. 현관의 대각선 공간은 '력기존'이라 불리는 자리로 생기가 넘쳐 사랑과 재물이 쌓이는 곳이다. 이런 자리엔 답답하고 큰 가구 대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



심리적으로도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은 안정감 있는 자리다. 그래서 소파도 일자형 소파 대신 스톨을 포함한 소파 혹은 코너형 카우치 소파를 두는 것이 좋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맞는 풍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큰 창문이 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현관의 바로 맞은편에 큰 창문이 있는 것은 현관 앞에 거울을 두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도 못한 채 나가게 하는 것과 같다. 이걸 막으려면 현관과 마주하는 쪽의 창문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해 닫아두는 것이 좋고, 그 앞에 관엽식물을 뒤 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수납장 또는 책장을 이용해 현관을 열자마자 보이는 곳에 두는 것. 이렇게 하면 마치 발을 설치한 것처럼 현관으로부터의 기운이 방 쪽으로 굽이굽이 이동하게 된다. 강물이 급하게 흐르는 것이 좋지 않듯, 기운이 완만하게 흐르게 하면 공간의 허함을 없애고 안정감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집을 만들어보자

집이라는 공간은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보편적일 수 없다.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기후, 풍토, 토질, 문화와 역사 등이 반영돼 만들어진 지역을 고려해 일부 보편적인 집이라는 공간에 가장 편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개성을 입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집이 완성된다.

또 집이라는 것은 남들의 시선과 행복의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진 공간이야말로 ‘집’이고 자신의 공간이 된다. 그러니 집은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몇 주 만에 그저 다른 사람이 사는 집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그 어떤 통찰력과 창의력,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자신의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갈 때 그 공간은 어느새 가장 편안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곁에 온전히 있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인 ‘하우스’(House)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자신과 가족만의 공간 ‘홈’(Home)을 만들어야 할 때다. ①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교육부 장관’ 표창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2021년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에서 7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인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는 교육학술정보서비스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제도로, 국내에 있는 민간 원격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교육부 장관 표창은 운영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2개 기관에 수여되는데 티처빌이 우수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를 인정 받아 선정됐다. (기사 중략) 티처빌은 우수한 원격연수 운영시설과 연간 이수자 수 증가, 높은 사용자 만족도, 체계적인 정보 보안 프로세스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연수원 최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원연수를 선 보이고 교사들의 직무함양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테크빌교육-월비스, ‘메타버스 콘텐츠 제휴’ MOU 체결



테크빌교육이 월비스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각 사의 교육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전환 관련 학습 콘텐츠를 디지털 N잡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하기로 합의했다. 테크빌교육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빅데

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전환 분야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월비스는 1억 뷰N잡 플랫폼을 통해 강의에 최적화된 클래스 개설과 실습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사 중략)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는 “에듀테크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취업에 필요한 메타버스와 혁신기술 관련 고품질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플랫폼을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2월 중 선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기호 기자

전자신문 (2022. 2. 7)

테크빌교육, “교사-학생-학부모 연결하는 학교교육지원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열고 ‘교사-학생-학부모를 연결하는 학교교육지원 에듀테크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기사 중략) 이날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주력브랜드인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과 ‘티처몰’은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토대로 교사 대상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출시한 교사수업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에 대해 “클래스메이커는 교사 수업준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향후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세한 학습과정 및 결과도 파악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SW메이커 교육 브랜드 ‘메이커랩’은 “학생 대상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 개발과 함께 교육과 기술 접목을 통해 교사 대상 새로운 시장 발굴과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자

테크월드 (2022. 2. 14)

테크빌교육-YBM, 2월부터 ‘클래스메이커’에 콘텐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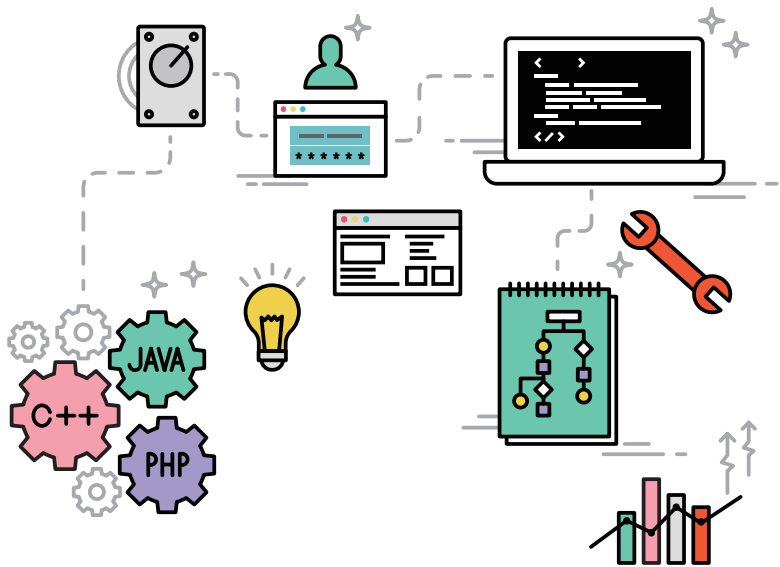
테크빌교육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이 교사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통해 YBM의 교과 수업 콘텐츠를 2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스메이커는 AI 기반 교사 수업자료 공유 플랫폼이다. 7만 6,000여 개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AI와 현직교사가 출판사별 초등 국·수·사·과·음·미·체·실, 학년·과목·단원·차시별로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선생님의 새 학기 시작을 축하하며 동료 교사에게 클래스메이커를 추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테크빌교육은 교과서 검정체제에 따른 공교육 교사 수업지원을 위해 YBM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YBM은 3~4학년 수학 콘텐츠와 3~6학년 음악, 체육,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티처빌은 클래스메이커를 통해 콘텐츠를 교과서 과목별로 큐레이션하고 교사에게 홍보·제공하기로 했다. (기사 하략)

조명의 기자

[1학점] ICT·스마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AI 코딩블록'

글. 티처빌사업부 콘텐츠기획팀



2025년에 예정된 AI 교육의 초·중·고 정규 교과 도입에 앞서 KT와 티처빌이 함께 'KT AI 코딩블록'을 활용한 AI 수업을 주제로 무료 학점 이수 비대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T AI 코딩블록'은 데이터를 수집·학습·가공해 미래 예측 AI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이미지 및 언어 분류 등 기초 AI 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웹페이지 기반 플랫폼이다.

티처빌, KT의 'AI 코딩블록' 직무연수로 선보여

티처빌은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교육 플랫폼인 'KT AI 코딩블록'을 활용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AI 코딩블록"을 1학점 과정의 직무연수로 오픈했다. 본 연수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국내외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를 통해 교사로서 인공지능의 변화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국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KT AI 코딩블록을 활용해 교과별로 학교에서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및 실제 현장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학급 수업 활용 방법을 제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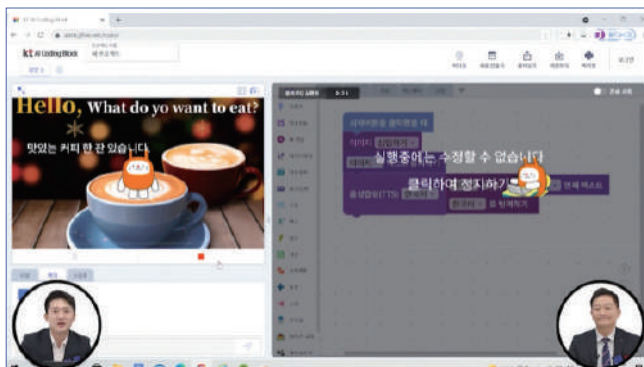
다. 과정은 △AI의 기본개념 이해 △해외 인공지능 교육과 국내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인공지능과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교과활용 [영어]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한 번역 프로그램 △교과활용 [국어] 좋은 말 나쁜 말 판별 프로그램 △교과활용 [수학] 온도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 모델 등 총 15차시로 구성돼 있다. 인공지능 기초부터 교과활용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일선 교사들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직무 연수 콘텐츠다.

누구나 AI 코딩블록 접속해 AI 단말용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

KT AI 코딩블록의 개발 취지는 프로그래밍 초급자는 물론 어린이들도 KT AI 코딩블록에 접속해 코드 블록을 쌓아가며 AI 활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기가지니와 같은 AI 단말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 학습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교사 연수를 위한 강사용 지도서 및 영상을 KT AI 코딩블록 사이트(aicodingblock.kt.co.kr)에서 무료로 제공해 교원들이 쉽게 학급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T AI 코딩블록 직무연수 콘텐츠.



KT AI 코딩블록 교육내용.

초·중등 교과과정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라이브 연수도 진행

티처빌은 KT와 협업을 통해 KT AI 코딩블록 플랫폼 소개 및 활용에 대한 라이브 연수를 2월 무료로 진행했다. 첫회는 AI 코딩블록의 이해와 교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진행됐다. 앞으로도 매회 초·중등 교과과정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총 6회에 걸쳐 라이브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시기별로 ' 쌤동네'에 무료로 개설된 KT 코딩블록 과정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매회 신청 인원이 정해져 있어 관심 있는 교원들은 빠른 신청을 바란다. 인공지능을 깊이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⑦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3기	4학점	04월 06일	05월 17일	05월 14일	05월 20일
	3학점	04월 06일	05월 10일		05월 11일
	3학점	04월 20일	05월 24일		05월 25일
	3학점	05월 04일	06월 07일		06월 08일
	3학점	05월 18일	06월 21일		06월 22일
	2학점	04월 06일	05월 03일		05월 04일
	2학점	04월 20일	05월 17일		05월 18일
	2학점	05월 04일	05월 31일		06월 02일
	2학점	05월 18일	06월 14일		06월 15일
	1학점	04월 06일	04월 26일		04월 27일
	1학점	04월 20일	05월 10일		05월 11일
	1학점	05월 04일	05월 24일		05월 25일
	1학점	05월 18일	06월 07일		06월 08일
4기	4학점	05월 25일	07월 05일	07월 02일	07월 08일
	3학점	06월 02일	07월 05일		07월 06일
	3학점	06월 15일	07월 19일		07월 20일
	2학점	06월 02일	06월 28일		06월 29일
	2학점	06월 15일	07월 12일		07월 13일
	1학점	06월 02일	06월 21일		06월 22일
	1학점	06월 15일	07월 05일		07월 06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쌤동네 쌤찾자

더 이상 여기저기 발품파는 강사섭외는 그만!
이제 쌤찾자에서 클릭 한번에 강사 섭외를 진행하세요!



우리학교 맞춤형 강사 섭외

6가지 섭외 카테고리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더 맞춤화 된 강사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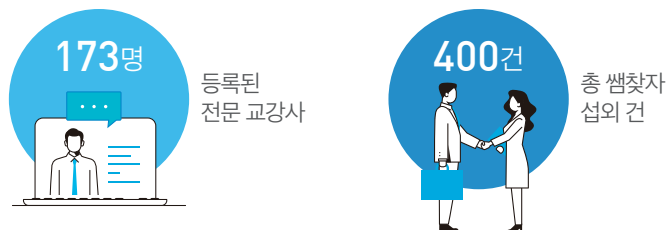
쌤찾자이용하기

쌤동네 '검색'으로
우리학교 맞춤 주제 강사 찾기 가능



쌤찾자이용현황

전국 유명한 선생님을
우리 학교로 섭외해봐요!
학교 맞춤 강의는 쌤찾자!



강사섭외 단계별 진행사항 실시간 알림톡 안내



· 2022년

· 티처빌 신규과정 ·

Coming Soon

대입 전략, 수박 하나로 준비 끝!

30차시

2023 대입 지원 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

박 권 우

강의 특징

- 대입 제도의 특징 및 주요 전형에 대한 분석 제공
- 학생의 장점을 살려 상황에 따른 대입 맞춤식 지원 전략에 대한 가이드 제시

강의 개요

대학은 많고, 대학별 전형의 특성과 인재상의 요건은 매우 다양하다. 본 과정은 대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부터 다양한 대학의 전형 방법, 준비 노하우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시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 및 주요 대학의 전형 방법을 파악해 학생의 진로 진학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 막막해하는 대입 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해소해주는 입시지도의 바이블을 확인해보자.



나태주와 함께하는 시에 빠지다

1학점

풀꽃 시인 나태주와 함께하는 시간의 심표

나태주, 최영진

강의 특징

- 시 감상을 통해 교사의 독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작품에 대한 감상을 자신의 삶과 관련해 내면화
- 철학적 메시지를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

강의 개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짧은 서정시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 1〉이다. 본 과정은 대한민국의 서정시인 나태주의 시를 문학적으로 풀어내 시와 시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읽어주는 시에서는 시 속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가며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독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태주 시인의 시를 교과에 적용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시를 통해 시인에게 직접 듣는 시를 쓰는 법, 시는 무엇인가 등의 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볼 수 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쳤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자!

2학점

힐링타임!

나를 위한 시간

요가의 정석 기초편

김재경



강의 특징

- 요가에 대한 용어·자세 등 기초 지식 이해 및 심신 단련
- 올바른 자세와 명상을 통해 업무 능력 향상

강의 개요

요가를 이해하고 따라 하면 심신의 강화, 직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컴퓨터를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를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사람을 대하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명상과 호흡을 통해 내면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요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과정은 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심신의 강화로 직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장시간 앉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요가 동작을 활용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타일러의 특급 영어 비법!

2학점

리얼클래스!

타일러의 진짜 영어
위 베어 베어스

시즌1

타일러 라쉬



강의 개요

타일러의 특급 비법을 가득 담았다. 본 과정은 타일러의 유쾌한 강의와 애니메이션으로 '실제로 쓰는 영어'와 '자연스럽고 활용도가 높은 영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연수다.

영어로 어떤 표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지금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입이 닫히게 마련이다. 연수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바로 '영어 자신감'이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인기 애니메이션 위 베어 베어스의 여러 표현이 실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영어로 대화하는 재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강의 특징

-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영어의 성격 파악
- 타일러와 함께 대화하듯 꾸준히 공부하며 영어의 재미 향상
-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어민 영어 습득



서울교사뮤지컬단 뮤즈(M.U.S.E)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와 나눔의 뮤지컬을 꿈꿔요

글. 김영후 서울 당산서중학교 음악선생님



교감하고 소통하는 뮤지컬의 매력에 빠진 음악교사

저는 올해 10년차 음악교사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클래식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만 부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연극동아리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악은 연습이나 무대에서 혼자 노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연극·뮤지컬 무대에 서보니 다른 배우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관객과 얼굴을 마주하고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분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 온통 뮤지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용고시를 볼지 뮤지컬 배우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뮤지컬 오디션에서 전부 떨어졌고, 선생님이 먼저 됐어요. 그래도 교사가 된 이후에 극단에서 총 12편의 뮤지컬을 직접 기획·제작하고 출연했습니다. 특히 연출에 관심이 많아 공연예술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도 했고, 예술학교에 발령받아 뮤지컬학과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서울교사뮤지컬단 '뮤즈(M.U.S.E)' 탄생

교사가 된 후에도 무대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늘 공연이 그리웠어요. 교사 모

1. 모차르트홀에서
연주회(2021. 11).

2. 극단에서의 뮤지컬
〈드라큘라〉 공연(2018. 4).



3.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뮤지컬과 수업(2018).

4. 서울교사뮤지컬단
유린타운(2019).



임을 찾아보니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많은데 연극·뮤지컬 커뮤니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극단에서 3년 정도 열심히 활동하다가 결국 교사뮤지컬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전문적인 뮤지컬 공연 제작시스템을 갖춘 ‘교사뮤지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2017년 첫 시작, 교사뮤지컬에 대한 확신

교사 뮤지컬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데 확신이 있었어요. 뮤지컬은 연극·음악·미술·무용·대본 등의 협업작업이 필요한 종합 예술입니다. 각 교과목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의 역량을 결집하면 음악·무대·기술·연극 등 협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어요. 또 선생님들의 공연인 만큼 수익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이라든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도 생각해 섰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직후, 대학 시절 선배와 인근 학교 음악선생님들에게 뮤지컬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뮤지컬 연출가인 대학교수님을 찾아가 선생님들이 좋은 취지로 뮤지컬을 만들어보려 한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렸어요. 학교장님께도 재능 있는 선생님들과 모여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학교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 뮤지컬을 제작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명 정도 모였어요. 이름은 뮤즈(M, U, S, E.)로 ‘Musical Union Seoul Education’에서 따왔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뮤지컬을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란 의미예요.



약력 김 영 후

- 서울 당산서중학교 음악교사
- 서울교사뮤지컬단 ‘M.U.S.E.’ 대표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박사과정
- 교육부 온라인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500여 명의 다문화 학생 및 가족과 함께한 뮤지컬 <빨래>

<빨래> 공연을 했을 당시 제가 근무했던 서울 대림중학교는 다문화 지역이었어요. 저는 첫 공연으로 다문화와 우리 사회 소시민의 일상을 다룬 뮤지컬인 <빨래>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았고, 선생님들이 따뜻하고 좋은 공연을 만들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으면 했어요. 선생님들과 주말·방학 기간에도 만나 4개월 동안 뮤지컬 프로덕션 작업을 진행했어요. 예산이 부족해 구청 다문화과에 직접 찾아가 이 지역 선생님들이 좋은 취지로 지역 주민과 다문화 학생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 시설을 활용하거나 교육 예산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협조를 구했어요. 4개월간의 프로덕션 끝에 그해 10월 영등포 꿈이룸극장에서 다문화 학생·학부모 500여 명 전 석 매진으로 공연을 잘 마무리

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랑의 바자회·병원 환우음악회·보육원·양로원 등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을 했고, 2017년에 평생학습축제에서 대상(서울시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2,000명의 관객과 호흡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뮤지컬 <영웅>

이듬해에는 우리 뮤지컬단에 30여 명의 선생님이 활동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신규 선생님부터 경력 30년차 대선배 선생님들까지. 과목도 체육·연극·기술 등 다양한 선생님이 함께 공연 제작을 했어요. 2018년은 상해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99주년이었고,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서울공업고등학교 대강당을 대관하고 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총 2,000명의 학부모·학생·선생님을 초청해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VR 가상현실 뮤지컬 콘텐츠도 제작

코로나19로 대면 활동 및 공연 제작도 불가하고, 일상 모임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선생님들의 강의나 연주 영상도 볼 수 있게 플랫폼을 개편했고, 스트리밍도 시도했고 최근 화두가 된 에듀테크도 접목해 VR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현실 환경을 활용해 학생들이 뮤지컬 무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뮤지컬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360도 화각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관찰하고, 연기와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여러 요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 포털을 통해 각 학교로 배포도 됐고, 연말에 교육감 표창도 받았습니다.

VR 영상



나의예술 교육철학, 나에게 뮤지컬이란?

음악과 음악 수업이 지식·개념을 이해하거나 혹은 학생의 개인적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학교·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나 봉사 같은 나눔 활동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들과 등굣길 음악회, 이웃 초청 음악회·병원 봉사음악회·지하철역 거리공연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음악의 진정

5~6. 서울교사뮤지컬단 뮤즈 창단공연 뮤지컬 <빨래>(2017).

7. 서울교사뮤지컬단 뮤즈 2회 공연 <영웅>(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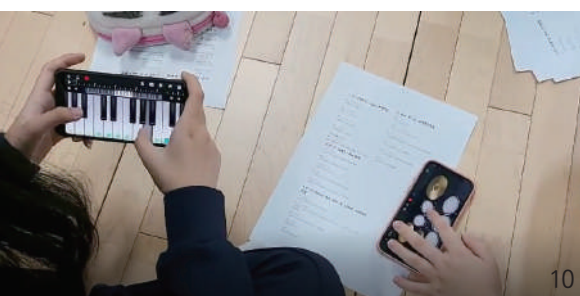




8



9



10

8~9. 사제동행 예술봉사활동.

10. 스마트폰을 활용해 랩을 직접 만든다.

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뮤지컬의 진정한 매력은

배우로 참여할 때와 기획이나 연출로 참여할 때의 매력이 다릅니다. 배우로서 뮤지컬은 음악이라는 강력한 예술을 통해 '살아 있는' 가상의 인물을 만나고 어떤 삶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예술입니다. 허구의 삶과 음악을 경험한 순간 '지금 여기' 현실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경험하게 하는 기회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과 뮤지컬을 만들 때, 늘 그런 긴 여행을 다녀온 것만 같습니다.

음악선생님과 힐링타임, 유튜브 채널 <뮤직후>

지난 2년간 선생님들과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뮤직후>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분야 특히 VR에 관심이 많아 예술교육 학습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기후변화,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해 랩을 직접 만들고 레코딩하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상 회복이 된다면 학생들과 좀 더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뮤지컬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고, 예전처럼 다양한 음악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버스킹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 나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교사뮤지컬단 'M.U.S.E'의 향후 계획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에서 'M.U.S.E' 활동을 좋게 보고는 '교사뮤지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함께 협업도 하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나 좋은 시스템들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해 교사뮤지컬단에서 7번째 정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7기 신입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⑦

유튜브 채널 <뮤직후>



유튜브 채널 <뮤직후>(구독자 약 1만 명)

운동으로 찾은 내 일상의 밸런스

내 안부 인사는 "언제 한번 같이 등산 가자"

글. 이하림 백운초등학교 선생님

스트레스 해소 위해 찾은 헬스장이 삶의 일상 바뀐

“선생님, 퇴근하면 뭐 하세요?” 2020년 5월까지,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주로 “쉬려고요.”, “친구 만나려고요”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로 제 대답은 “헬스장 가요.”, “등산하러 가요.”, “러닝 하러 가요”가 됐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후 거의 약속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헬스장을 처음 찾았습니다. 별생각 없이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10회를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헬스장에 가도 러닝머신만 타던 제가 기구를 하나하나 해봤고, 근력운동을 배우게 됐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웨이트를 배웠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메모하고 기록하며 수업을 마친 후에는 배운 운동을 복습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유산소 운동도 1시간씩 매일 매일 빠짐없이 했고요, 그렇게 10회의 PT 수업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개인 PT 30회 하니 웨이트 동작 몸에 익어

처음 제 목표는 혼자서도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고, 10회의 수업으로 그것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서 10회 추가, 10회 추가를 해서 30회를 하게 됐고, 매일 운동할 수 있는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대로 복습하고 혼자 운동하다가 모르면 질문하면





서 웨이트 동작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내는 저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보디프로필 촬영이나 대회에 나가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엄두가 안 난다며 손사래를 치던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 나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의 보디프로필 촬영, 스스로 대견해

2020년 6월 헬스를 처음 시작하고, 2020년 12월에 보디프로필 1회 촬영을 시작으로 1~4월 간 3번의 보디프로필을 더 촬영하면서 총 4번의 바디프로필 촬영을 완주했습니다. 힘든 운동을 매일 하고, 정해진 식단을 지키면서 모든 촬영을 완주한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과 결과물을 보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고, 지금도 그 성취감을 느끼고자 퇴근 후 매일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웨이트’ 강력 추천

웨이트를 추천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네, 무조건!”이라고 답합니다. 사실 웨이트는 그렇게 재미있는 운동은 아닌데요, 혼자 해내야 하는 운동이고 정확한 자세를 모르면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웨이트를 꼭 배워보라고 추천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경쟁의 요소가 많은 다른 운동에 비해 웨이트는 스스로와의 싸움, 즉 도전의 요소가 많습니다. 무리한 무게나 동작보다는 정확한 동작을 배워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 다른 운동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운동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운동복·운동 장비 등 소요 비용이 많습니다. 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환경적인 영향이 적고, 실내에서 가벼운 복장으로 할 수 있어 드는 비용이 적습니다. 물론 PT 수업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운동에 비해 훨씬 가성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단·영양소 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돼

웨이트를 하면서 식단·영양소와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다



1~2. 이제 ‘퇴근 후 헬스’가 일상이 됐다.

3. 도넛 소품을 활용한 보디프로필 촬영.



약력 이하림

• 백운초등학교 교사

이러트 식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연식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식단이 건강한 식단임을 알게 됐고, 지금도 그 지식을 활용해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 교정이 돼 그동안 시달렸던 허리와 어깨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등산의 매력에 빠져 아이들에게도 소개 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과 친해지면서 다른 운동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질 무렵 밖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악산·수리산·청계산·삼성산 등 가본 적이 있는 가까운 산을 갔습니다. 산에서 느끼는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 탁 트인 경치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다른 산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고, 지리산·설악산·영남알프스 등 여러 산을 다녔습니다. 국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등산은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땀 흘려 올라가 자연이 주는 예쁜 경치를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전국 곳곳의 산을 둘러보며 우리나라에 많은 산이 있고 산마다 나무와 생태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에게도 주말에 다녀온 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취미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도 등산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말에 등산 다녀왔어요. 가족이랑 둘레길 다녀왔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스팔트 길만 오가는 일상에서 흙과 돌로 만들어진 자연의 길을 밟는 경험이 너무나 좋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접근성 좋고, 특별한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등산

다른 운동에 비해 등산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날씨와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아주 특별한 장비 없이 등산화와 식량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등산을 알게 되면서는 여러 환경에 대비한 장비 욕심이 생기지만 사실 큰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입니다. 산에는 입장료가 없어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일까 걱정할 필요 없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경치도 즐길 수 있고요. 내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과 안부를 전할 때 항상 “언제 한번 등산 같이 가자”라고 인사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산도 좋고, 아름다운 국립공원도 꼭 가보라고 추천합니다.



4



5

4. 설악산에서.

5. 청계산 매바위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운동하는 일상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퇴근 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퇴근시간이 빨라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 헬스'가 일상이 돼 운동까지 마쳐야 비로소 퇴근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땀 흘려 운동을 하다 보면 학교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됩니다. 학생·학부모 등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운동 가기 싫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해냈을 때의 성취감, 자기 효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합니다. 그 자존감이 학교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도 큰 힘이 돼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운동하면서 인간관계와 세상을 보는 시야 넓어져

그동안은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학교 안에서 이뤄졌는데요, 운동하면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다양한 분야와 삶의 방식도 알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사람 살아가는 모습에 관해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근 후 일상이 무료해 시작한 운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학교생활,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의 이점 교육에 접목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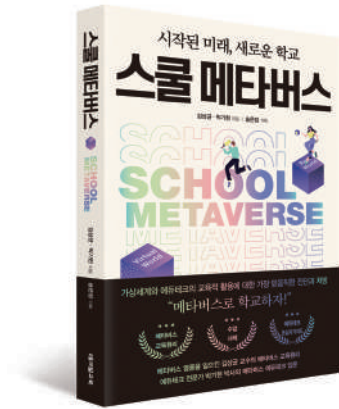
2022년에는 새로운 운동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서핑을 배우고, 겨울에 보드를 배웠는데 좀 더 노력해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클라이밍도 배우고 싶고 로드 자전거도 입문할 생각입니다. 또 꾸준히 운동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운동을 소개해주고,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고 싶습니다. 자세 교정, 건강한 식습관, 스스로의 운동 능력에 대한 도전 등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교육에 접목하고 싶습니다.

같이 등산이나 헬스할 선생님, SNS로 DM 주세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운동이든 스스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집 앞 산책도 좋고,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등도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마음과 정신이 환기되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2022, 선생님들에게도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함께 등산이나 헬스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SNS(인스타그램)로 DM 주세요! 우리 같이 운동해요! ⑦

harimida Instagram





시작된 미래, 새로운 학교

스쿨 메타버스

저자. 김상균·박기현

출판사. 테크빌교육

메타버스 국내 최고 전문가 2인의 만남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 교육원리×박기현 박사의 메타버스 에듀테크 문해력 특강

중 이후 온라인 교육의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클래스룸의 유일한 기본서 겸 최고의 실용서

전 세계가 메타버스로 들썩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사업의 본격화를 선포하기 위해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꿨다.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들은 물론이고 각종 공공정책과 각계 산업 모두가 메타버스로 시선을 돌렸고 닳을 내렸다. 잠깐의 유행이 아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이에 교실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메타버스 열풍을 본격화시킨 김상균 교수와 국내 에듀테크 분야 전문가이자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인 박기현 박사가 만나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기본서를 펴냈다. 교육 분야 메타버스 기본서 겸 실용서를 표방하는 이 책은 앞부분에 메타버스에 대한 가장 쉽고 정확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메타버스 용어의 진짜 의미를 해설한 다음 왜 학교에도 메타버스가 필요한지, 메타버스를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 메타버스 교육원리를 제시하고 그 필수 방법론으로서 게이미피케이션의 핵심을 설명했다.

또한 메타버스의 주축인 에듀테크 산업을 소개 및 개괄한 뒤 메타버스 에듀테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근거리 미래 전망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제시해 초심자들의 에듀테크 문해력을 확실하게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들의 실제 수업사례 가운데 인기 사례를 수록해 실용서로서의 입지 또한 분명히 했다.

학생들의 중 피로감에 대한 돌파구는 다른 아닌 메타버스에 있다. 가상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크나큰 흥미와 막강한 실제감은 학생들을 계속 학습하게 이끈다. 이런 이유로 메타버스를 학교와 교실에 도입해볼 것인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기본서 겸 최고의 실용서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중등 학급경영

저자. 최선경

출판사. 테크빌교육

영어 교사이자 교사성장학교인 '고래학교' 최선경 교장 선생님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급경영 노하우, 그리고 행복한 담임교사가 되기 위한 기술을 가득 담은 책을 펴냈다. 초등의 경우, 학급경영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고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지만 중등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있는 자료도 활발히 공유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선생님마다 차이가 크고, 때로 혼자서 아등바등 교실을 이끌어 가다 번아웃되는 선생님도 생긴다. 최선경 선생님이 이 책을 출간한 이유다. 1장에서는 학급경영의 중요성, 학급경영 철학 세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자가 실천해온 방법들을 소개했다. 2장에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호응이 좋았던 '특색 있는 학급경영 사례'를 정리했다. 3장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이자 교사성장학교인 '고래학교' 교사들의 새로운 학급경영 사례들을 소개했다. 마지막 4장에는 학급경영 대표 고민과 그에 대한 팁을 소개하면서 자존감 높고 행복한 교사로 살아가는 선한 기술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온라인·오프라인 수업과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에서 지치고 힘든 중등 선생님들이 다시 힘을 내어 크게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교실관리 치유서'로 쓰이기를 꿈꾸는 선한 양서다.



초등·중등 문제해결 장면 56

지혜로운 교사는 교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자. 고영규·왕건환·이상우·이영기·홍경은·황덕현

출판사. 테크빌교육

학급살이, 수업,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대하기.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교사를 위한 특급 처방전이 책으로 나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시시때때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 학급운영, 학부모 관계, 교사 갈등, 교권침해, 학교생활... 이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은 소통에서부터라는 점이다. 지혜로운 교사의 기본이자 그 정점 역시 소통으로 귀결된다. 이 책은 현직 교사 6명이 실제 학교에서의 문제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지, 또 어떻게 존중받고 회복되는지에 대한 진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6명의 현장 교원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문제를 모아 그 과정을 살펴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1) 학급운영 2) 생활교육 3) 교권침해 4) 학부모 관계 5) 교사의 학교생활 6) 법률 대응 등 여섯 분야의 문제상황별 솔루션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교실 속 문제해결에 있어서 한 가지의 올바른 답이라든가 정해진 답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책은 교사가 각자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씨앗이 되기를 자처한다.

학툰

Heartoon



그림. 이병웅
대구 용계초등학교 선생님

졸지마

어린 시절
너를 만났다면



무슨 얘기
젤 해주고 싶어?



음...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 앞에서



쫄지 말라고,
더 당당해도 된다고?



쫄지마 오늘도



from. 미래의 나

SNS를 통해 일상의 마음을
그리는 초등교사 이병용입니다.
퇴근 후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에
-heartton(Hearttoon)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쁜 학기 초
친숙한 커피 친구들과
가끔 수다도 떨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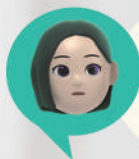
-heartton (Hearttoon)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



엄마, 아빠!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티처빌 회원 대상
특별 할인 쿠폰

※ 사용기한 : ~2022.04.22



부모자녀관계검사2.0으로
부모와 아이의 기질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관계에 꼭 맞는 양육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부모공감키즈는 티처빌연수원의 패밀리사이트입니다.

문의 1644-7429 www.bumonkids.com



2022 티처빌 회원권

2022년 회원권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2학점 회원권

올해 딱 들어야하는
의무연수만 가볍게 들을래요

연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4학점 회원권

4학점도 신청하고 싶고,
듣고 싶은 연수가 많아요

쌤동네, 티처몰도
이용해보고 싶어요!



티처빌 | 2학점 회원권

135,000원 → 75,000원

티처빌 | 4학점 회원권

247,000원 → 120,000원

티처빌 연수 코인 2개

① 코인활용법

연수 코인 4개

쌤동네 5,000 포인트

② 포인트활용법

10,000 포인트

티처몰 무료배송쿠폰 1매

무료배송쿠폰 2매

회원권 선물

2022 티처빌 굿즈
쌤구 폴딩 카트

회원권 전용
교권보험 무료

2학점 회원권 구매하기



4학점 회원권 구매하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회원권 선물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자세한 사항은 티처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티처빌연수원

👤 쌤동네

👤 클래스메이커

👤 티처몰

👤 키즈에듀빌

👤 즐거운학교

부모공감 **키즈**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